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6-13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6-13
2021.06.13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396580214>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06.13

1. [누가죄인인가]

한국에서이미 13 년을살아온중국국적의한여성이귀화를신청했으나한국국적남편과이혼후생계를위해노래방도우미일을하다벌금 30 만원의약식명령을받았던것을이유로이를거절당했다. 혹기사를안읽고' 여태중국국적으로잘살다가왜이제와서한국국적을얻으려하나' 는질문을할이들을위해사족을달자면, 이여성의아들은한국국적을지니고있고, 아들을키우기위해서부모의한국국적이필요한경우가상당수현실적으로존재하기때문이다.

먼저확실히언급해둘것은, 아나키스트연대는성의판매와구매모두에단호히반대한다는것이다. 나의자유의지로내가지니고있는것을파는것이자유시장, 혹은아나키즘의원칙에어긋나는것이아니지않냐는케번은, 아나키즘은무한한자유정의정기전에모든권위와나를자유롭지못하게하는모든것으로부터의해방을이야기한다는것을의도적으로편취하는말에다름아니다. 돈때문이란성매매가세상에존재할수있는가?

우리는모두내가원하는사람과자유롭게사랑을이야기하는세상을원하지, 그것이돈으로거래되는세상을원하지않는다. 하지만지금의성매매산업구조는이것이존재하도록직간접적으로이루어지도록종사자들을, 심지어는구매자들마저몰고가고있다. 한국의그어디를가든너무나쉽게성을구매할수있다. 수요가있는곳에는언제나공급이존재한다는, 너무나극명한자본의논리에따라그러하다. 또한성매매에대한인식이과거보다비판적으로변했다는이들도있으나과연정말그러한가? 오늘도저녁만지나면변화가길거리에는출장안마명함짜라시가, 바전단지, 노래방빠씨가줄비하고인터넷에서는너무나쉽게성매매에관한정보를직접적으로얻는것이가능하다. 나아졌는가?

이렇게성매매에진입하는것이너무나쉽고, 자본도기술도없는상황에서이산업을떠나아이를키울돈을버는것이너무나힘든세상에서그것을했다는이유로귀화를거부한다는논리를퍼는것은너무나어불성설이지않은가. 더군다나작금의현실은사람들이기피하는직종을사실상해외에서들어오는이들에게떠넘기고있다. 한국의건축현장어디를가더라도여러국적의노동자를만나는것은일상다반사이고, 노동강도나위험도가높은노동환경이면환경일수록더더욱그러하다. 이렇게한국에서한국인들이기피하는직종에이주노동자들을몰아넣고있는상황에서, 이런상황에서처하게끔그들을몰아넣어놓고는왜그런짓을했냐며불이익을주는것은과연공정하고정당한가?

모든사람이원하는곳에서원하는일을하며원하는이들과생활하는것, 이것이너무나무리한요구라서결코이루어질수없는꿈인가. 내자식과함께있을수있는것조차지나친꿈이라고말하는것이국가라면, 그런것이왜존재해야하는가? 행복을위한아주자그마한것조차제공해주지못하고, 오히려그것을빼앗기위해약한이들을끊임없이궁지로몰아넣는이무능하고비열한국가는, 과연존재해도되는것인가? 과연누가누구에대한죄인인가?

” 노래방도우미중여성” 생계형범죄” 호소에도…法” 귀화불허정당”” :

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이 단합하여 가상화폐의 관계자들을 나치시절의 유대인보다도 더 심하게 잡으려고 협력할 것이다.

이쯤되면 가상화폐가 왜 이상에도 달할 수 없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상화폐가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자본 자체가 가상화폐의 본질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윤을 통해 자본을 더 축적하고, 중앙화하려듯이, 자본에게 있어 중앙화는 정체성이며 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어떤 형태로든 견어 내려한다. 결국 블록체인의 기술이 진정으로 탈중앙화하려면 현재 과학기술의 기반이 되는 자본이 비자본주의적 생산수단으로 변해야 한다. 과학기술이 진정으로 국가나 거대기업이 아닌 사회의 개개인의 해, 개개인을 위해 쓰여지면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75747_34936.htm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10697?sid=102>

2.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이 돌아왔다! 마크롱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나타낸 찬사다. 트럼프가 나탈 남으로 서기 존 질서와 안정이 흔들렸고, 민주주의에 위기가 찾아와서였단다. 그리고 이제 서야 대화가 가능해져서였단다.

돌아온 거라면 돌아온 게 맞긴 할 것이다. 단지 다른 방향으로 더 지옥 같은 현실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지만. 그리고 더 강력한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겠지만. 트럼프는 적어도 기존 미국의 회민주주의라는 개념과의 회민주주의라는 체제에 대한 대중의 신뢰, 인식을 땅 끝까지 갓다 쳐 박은 사람이다. 그리고 바이든은 이걸 다시 되돌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이 시도에 다른 위정자들은 찬사를 보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트럼프는 파쇼다. 제국주의자였다. 그런데 바이든도 다를 게 없었다. 바이든이 내부 정책으로 무언가 조금 더 '진보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찬사를 내비치는 사람들에게, 부디 정신 차리라고 하고 싶다. 그거 4 년에서 8 년 짜리다! 아니, 1~2 년 짜리 일 가능성도 농후하다.

미국이 되 돌아와 다시 세계 민주주의의 거두가 되리란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린 끊임 없이 주장한다. 미국은 처음부터 민주주의의 거두였던 적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력권을 형성하던 시기부터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국제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미국이 돌아왔다고? 뭘 새삼스럽게. 더 강화된 제국주의, 더 강화된 논가리기의 연장선일 뿐인 걸.

”” 이제 대화가 가능”...G7, 트럼프가 바이든 오니’ 훈훈”” :

<http://naver.me/xWNDatRQ>

3. [이게 노동조합? 음, 역겨워...]

한국노총 우정노동조합께서, 택배노동자들의 “불법파업”을 엄정하게 규탄하며, 더 이상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집배원 (정규직) 에게 업무를 전가하여 회생을 강요하지 말” 라고 선언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정노조가 노동자의 연대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다. < 우정노조 “우체국 택배 위탁계약 전면 해지해야” > 라는 헤드라인에 어그로가 끌려서 기사를 클릭했다가, “그” “역사와 전통의” 우정노조임을 보고, ‘아, 또 해주셨구나’ 이상의 감흥을 끌어내지 못하는 우정노조의 줄어들어 버린 용어 어그로가 안타까운 것이다.

그 시작을 ‘대한노총’에서 시작하시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파시스트들의 정권 아래에서, 모든 민주적/변혁적 조직들이 탄압당하여 죽어가는 와중에도, 곳곳하게 성세를 누려 오신 그분들. 조합원 총투표에서 결정된 총파업을

하루아침에직권조인으로뒤엎으시며, 국민의편의를위해결단하신, 한번도파업하지않은자랑스러운전통아래에있으신그분들. 감히집배노조같은것을만들어민주노조같은것을하겠다는불순분자들을사용자보다먼저발벗고나서탄압하신우국충정의지사이신그분들. 애초에이번파업의원흉이된택배민간위탁확대를대승적으로합의하셨던그분들이다보니, 이제와서택배노조의“불법파업”을엄중히규탄하시며, 그불법파업에동참한자들을해고하라고주장하신대야놀랍지도않다.

그저우리는, “위탁배달원의물량거부를무력화할목적으로집배원들에게배송을전가하는우정사업본부의기만적인정책에반대”하면서, “집배원초과·주말근무부당명령을거부”한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민주우체국본부동지들의‘상식’을보며눈을정화할뿐이다.

다시한번, 우정노조께서는“국민불편을최소화하려면사명감을가지고일을처리”해야한다고주문하시었다. 우리보다훨씬오래“노동조합”을하셨지만, 그“노동조합”이“노동조합”이아니다보니, 학습이더필요하신우정노조의관료여러분들께, 기본적인노동조합관계“법”의교육을시켜드리고자한다.(그리고, 아나키스트에게법교육을받을정도면, 님들좀광장하신것이맞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제 2 조 의 6. 은, ““쟁의행위”라함은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노동관계당사자가그주장을관철할목적으로행하는행위와이에대항하는행위로서업무의정상적인운영을저해하는행위를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

“업무의정상적인운영을저해”하는게파업이라고명칭이들어.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6121650001

4. [가상화폐의일장춘몽]

가상화폐에대한정부의규제가본격화되고있다. 가상화폐거래소들은정부의규제에서살아남기위해일종의소비자인가상화폐투자자들의절규는무시하고나몰라라하고정부가원하는대로내부기준미달의가상화폐들을상장폐지하고있다. 어찌보면당연한것이다. 가상화폐는단순히경제질서를혼란스럽게하는사기가 아니라, (물론그런사기도매우많긴하다.) 중앙화된자본주의예정면으로도전하는탈중앙적(?) 자본주의자들의발칙한발상이기때문이다. 그리고그들입장에서는지금은고난의시기일뿐이고, 언젠가는기술발전을통해다다를수있는이상이라여길수도있다. 하지만오늘이단평에서짤막하게나마이상이왜불가능한지를증명하고자한다.

우선가상화폐의공, 이상에대해알아보도록하자. 이는이더리움의공동창업가비탈릭부테린이말한‘블록체인트릴레마 (불가능의삼각정리)’라는용어에서잘드러난다. 여기에는암호화폐의세가지요소가등장하는데바로탈중앙화(Decentralization), 확장성(Scalability), 보안성(Security) 이다. 이중에서 1 세대, 2 세대블록체인(암호화폐의기반이되는기술) 중에서는 2 가지를갖춘경우는많지만세가지지를모두갖춘경우는없다. 대표적인예로우리가흔히하는

비트코인이나이더리움등의전통적인블록체인류는탈중앙화, 보안성을갖췄지만확장성을못갖췄고, 높은초당처리속도를갖춘블록체인류는확장성과보안성을갖췄지만탈중앙화하지못하였고, 멀티체인에코시스템류는탈중앙화와확장성을갖췄지만보안성을못갖췄다. 여기서좀더궁부한사람들은이리물을것이다. “그러면 3 세대블록체인은? 3 세대블록체인은위세가지지를모두갖췄다고하지않았나?”

이에대해현재가상화폐의비기술적인한계에대해알아보자. 우선우리는비트코인은어떻게거래하는가? 바로전용거래소를통해서거래한다. 여기서바로알아챘을수도있지만각종가상화폐와달리거래소는대표적인‘업비트’처럼중앙화되어있는, 기업이통제하는형식이다. 따라서당연히정부입장에서는굳이멀리갈필요없이거래소를운영하는기업에만압박을넣어서거래소를하청업체마냥통제하기만하면된다.

하지만, 만약그렇다면거래방식도탈중앙화하도록기술과시스템을확보하면되지않을까? 실제로도 3 세대블록체인기술은과도한전기와기기소모를요구하는작업증명(채굴) 대신투자기간과투자지분량을기반으로하는지분증명방식으로전환하는등여러한계를점차극복하고있다. 그렇다면언젠가온전히탈중앙화된, 보안이잘되어있고확장하기좋은, 검증된블록체인과가상화폐가등장하지않을까? 그러한블록체인은등장할수있겠지만가상화폐는아니라고단언한다. 그리고그이유는블록체인기술밖에있다.

앞서말한그러한가상화폐가현재국제적자본주의체제에등장했다고가정해보겠다. 정부는먼저자신의본질에따라제도상으로통제하려할것이다. 과거의가상화폐라면거래소를통제하면서쉽게굴복시킬수있었지만이번가상화폐는그렇지않다. 이렇다면정부가앞서움직인다고보다는정부의본래주인인자본가와거대자본이언론을움직여서가상화폐의약점을찾아내서반대여론조성을하려해볼것이다. 과거의가상화폐라면자원낭비, 환경파괴, 사행성등의약점들이 많겠지만이번에는없다고치자. 그러면거대자본은과거의자본가들을내다버리는것을각오하고비로소가상화폐개발자들과투자자들을새로운체제의‘왕’으로인정하여새로운왕관을하사할것이다. 이렇게왕관을받아들인다면, 결국그가상화폐도지분을많이가진자들, 원년투자자들등을위주로저절로중앙화되고본래가상화폐가꿈꿨던이상은사라지고말것이다.

“아냐, 그러지않을거야!”라고부정할수도있다. 그리고개인이실제로어떤선택을할지는알수없기에실제로그럴수도있다. 거대자본의왕관을건어차버릴수도있을것이다. 그렇다면거대자본은전심전력을다해국가의폭력을조종하면서그가상화폐를이세상에서지워버리기위해모든수단을다할것이다. 근대자본주의국가들이사회주의자들을감옥에넣거나사살해버렸듯이, 현대미국이대놓고드론암살을하듯이말이다. 가상화폐는모두가데이터베이스복제본을가지고있기에, 탈중앙화되어있기에국가가간섭하기어렵다는말이무색하게거진모든자